

# 건강기능식품 표시 알기 쉽게 바꾼다

내년부터 성분·함량 등 정확하게 표기  
활자 키우고 제조일·유통기한 앞면에

내년 1월부터 건강기능식품 포장의 표시 내용이 강화되고 글자 크기가 커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기능성 성분의 명칭과 함량,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사용목적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활자의 크기를 키우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표시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제품 앞면에 현행보다 더 크게 표시하되 제품명,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접자라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타민C 1일 섭취량 기준이 현행 55mg에서 100mg으로 상향 조정에 따라 비타민C 보충용 건강기능식품의 1일 복용량에 들어 있어야 할 최소한의 비타민C 양이 현행 약 20mg에서 30mg으로 늘어난다. 반면 나트륨 1일 섭취량 기준은 3천500mg에서 2천mg으로 낮아졌다. 이와 함께 주원료의 함량으로 표시된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기능성 성분의 함

량으로 오인해 함량이 100%에 가까울수록 좋은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원료를 표시할 때에는 기능성 성분의 명칭과 함량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밖에 일반식품의 기준과 동일하게 알레르기 유발 원료에 '새우'를 추가해 새우가 들어간 원료나 식품첨가물이 사용됐을 경우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을 표시하도록 했으며 각종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사용목적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했다. 한편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통로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

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협회 홈페이지(www.hfood.or.kr)를 통해 직접 부작용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구축해 12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또 전문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식약청은 지난 6월 종로구약사회와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오는 12일에 강남구약사회와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소비자위생전담건강기능식품부작용신고센터(www.khcc.or.kr)와 전문가신고사이트(http://hfood.kfda.go.kr)는 현행대로 운영된다. /연합뉴스

# 대한통운 인수전 금호-한진 격돌

세계 라이벌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한진그룹이 대한통운 인수전에 참여를 선언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와 한진은 지난달 27일 대한통운 매각공고가 난 뒤 내부 검토 작업을 거쳐 이날 대한통운 인수 의향을 각각 제출했다. 아울러 CJ와 STX도 인수 의향서를 내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아시아나측은 "대한통운을 인수하면 전국에 4개 물류기지를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 한국복합물류㈜와 항공 화물, 고속, 렌터카 등과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수 있어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한진은 육해공 물류를 모두 담당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서 대한통운 인수를 통해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대한통운 인수를 통해 글로벌 물류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들 기업이 대한통운 인수전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자산 1조5천억원의 대한통운을 인수할 경우 세계 순위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공정위가 발표한 세계 순위는 금호아시아나가 자산 22조8천700억원으로 세계 7위로 도약한 반면 한진은 22조2천200억원에 그쳐 8위에 밀려난 상황이다. 대한통운은 내년 1월 중순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을 진행하며 2월말 최종 인수자가 결정된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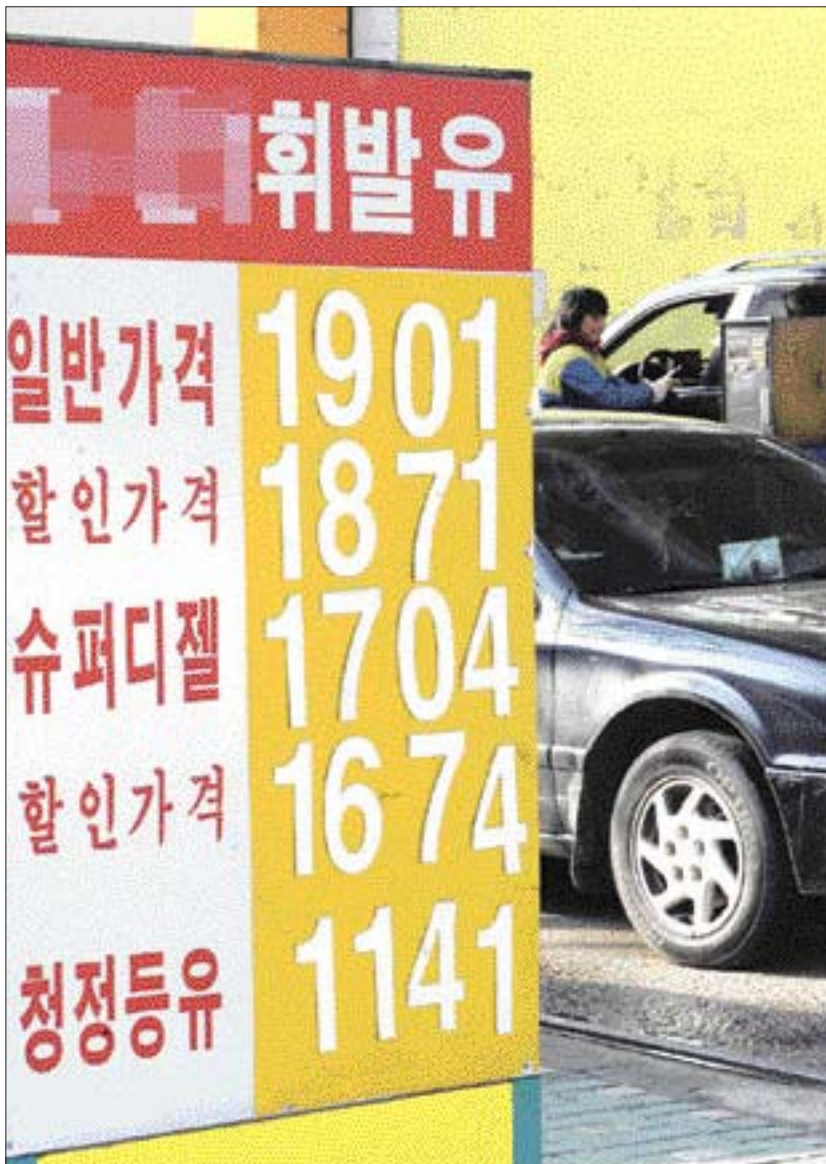
# 국민연금 기금 운용공사 만든다

국무회의 법률안 의결 금융·투자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키로

수십 년 내에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을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가 설립된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여유자금 운용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등의 이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독립된 법인인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토록 하고, 기금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도 전문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에 설치돼 있는 운용위를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로

설치해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 투자 및 운용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토록 하며, 자산운용에 특화된 금융 및 투자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들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운용위는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사장에 경영 및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사 운영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운용공사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해 시정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운용공사는 회계감사와 직무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등유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서민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유에 부과되는 부과금을 폐지토록 하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각의는 또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공모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특별채용 방식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재난이 발생한 경우 원인규명과 재난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원인조사를 하는 경우 외에는 소방방재청장이 그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원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반을 구성·운영토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된다. /연합뉴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가 7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1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리터당 1천901원(할인가 1천871원)에 판매되고 있다. /연합뉴스

# 무섭다, 휘발유값

서울 주유소 1,900원 돌파... 7주 연속 사상 최고 경신

서울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리터당 1천700원을 넘어선 가운데 1천900원이 넘는 가격을 내건 주유소들이 등장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GS칼텍스 계열 A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천908원이고 서울 은평구의 S-Oil 계열 B주유소는 리터당 1천901원으로 모두 1천900원을 돌파했다. 이 밖에도 서울 여의도의 SK 계열 C주유소가 리터당 1천826원에 판매하는 등 서울 여의도와 강남 일대에 1천800원을 넘는 주유소들이 상당히 많아져 유가 상승이 지속된다면 조만간 1천900원을 웃도는 곳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임상의사 20% 비선택진료 의사로

내년 7월부터 의무화

선택진료(특진)를 실시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내년 7월부터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의 20%를 비(非)선택진료 의사로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또 진료과목별로 최소 1명 이상의 임상의사를 비선택진료의사로 두어야 한다. 선택진료는 환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건강보험수가의 20~100%에 달하는 추가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11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08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의료법 자체를 고쳐 별첨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를 어기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르면 2008년 하반기나 늦어도 2009년 1월부터는 과태료 부과 등의 형태로 처벌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선택진료의료기관은 앞으로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의 80% 범위에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해야 한다. 그동안 병원은 기초연구나 예방의학 등을 전공하는 기초의사와 1년 이상 장

기 유학중이어서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는 의사를 포함한 '재직의사'의 8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선택권은 사실상 제한되는 강제진료나 마찬가지로 지적을 받기도 했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림 팀장은 "이를 테면 A병원의 경우 기존에 기초의사나 해외장기유학 중인 의사들을 포함해 모두 78명을 비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함으로써 사실상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는 게 불가능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상의사가 가능한 비선택의사 47명이 늘어나 환자의 실질적인 의사선택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계약사들 연구보다 판매 열중

3개사는 매출액 절반 이상 판매관리비 사용

국내 계약사들은 연구개발보다는 판매관리에 더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6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 중에서 절반 이상을 판매관리비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3군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펴낸 '2006년 의약품 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주요 계약사의 이른바 '판매비율'(판매관리비/매출액 × 100)은 2004년 38.3%, 2005년 44.2%, 2006년 45.3% 등으로 거의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판매관리비는 주로 영업사원의 인건비나 판매촉진비 등에 쓴 비용을 말한다. 2006년 판매비율이 높은 상위 제약

사를 살펴보면 한올제약이 5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안국약품 54.2%, 한미약품 52.5% 등이었다. 아울러 동아제약 48.4%, 태평양제약 48.3%, 삼진제약 47.9%, 근화제약 46.4%, 종근당 44.3%, 보령제약 43.7% 등의 순이었다. 반면 국내 계약사들은 연구개발 투자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거래소 상장기업(37개사) 및 코스닥 등록기업(19개사)의 전체 매출액 규모는 2001년 약 4조1천 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5년에 약 6조4천억원에 달했다. /연합뉴스

# 공인중개사 자격증 10개 중 7개 '장롱 신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10명중 3명만 실제로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공인중개사가 운영중인 중개업체는 6만9천175개로 작년 말에 비해 2천899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3년에 급증했다가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의 연장선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2003년 한해동안 9천691개 늘었으나 이후 2004년 6천8개, 2005년 5천70개, 2006년 3천844개 등으로 증가세가 움츠러들어 포화상

태에 이르렀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올해 증가세 둔화에는 정부의 각종 부동산안정대책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시장의 위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거래된 아파트는 월평균 6만7천102건으로 작년의 월평균 거래건수(9만4천41건)의 71.4%에 그쳤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만2천91개로 가장 많고 서울이 1만9천391개, 인천 4천842개 등으로 수도권이 많았으며 부산(3천273개), 경남(3천9개)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미감일	연락처
가이자동차 광주제일대리점	자동차영업사원 신입 및 경력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3	062-574-8011
㈜캠스텍	대기업 인내사원 구원	고졸/경력무관	1000~1200	12/14	062-364-6312
김동을찾는사람들	여행사 직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4	062-376-7666
남해종합개발	경리/회계담당 직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6	062-220-2514
국도디자인	인테리어기사(남)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12/17	062-362-6626
HRN	SK텔레콤 서부지사 114상담원 (주5일근무)	고졸/경력무관	2200~2400	12/18	062-529-2671
대영하이텍	자동차 경력사원	고졸/경력년	회사내규	12/18	016-315-8397
에스엠텍	전자제품 상차 보조인력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2/18	062-950-6548
상이타일건축	배수, 창고관리직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2/18	062-513-2240
세정미사	세정아울렛 미사 판매사원(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8	011-612-3123
현진기업	조공 및 용접사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2/20	062-972-8235
EK Productions Inc.	(정규제)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이벤트 기획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0	062-513-5050
신인중공업	조선설계 [선체, 선장, 기장] 경력직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12/22	062-717-5561
세광에스텍	[회계사무직]/생산품질관리 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2	061-464-9980

〈광주정보리아 512-6210 제공〉

**“기업에 호감은 가지만... 내 자식은 공무원 시킬 것”**

**전경련 국민 인식 조사**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기업에 호감을 갖고 있고 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높지만 자녀의 직업으로 기업과 관련된 일자리를 선호하지는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결립을 통해 전국 5대도시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1일 발표된 ‘기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호감’을 밝힌 응답자가 56.2%로 ‘비호감’이라는 응답자 43.8%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많았다.

기업에 호감을 갖고 있는 응답자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성장 기여’(54.3%)와 ‘일자리 창출 기여’(29.3%)를 주로 꼽았다.

이전과 비교한 기업의 각 분야 활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부문별로 ‘이전보다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포함)’는 응답과 ‘이전보다 못하고 있다(매우 못하고 있다 포함)’는 응답의 분포를 보면 사회공헌 활동은 38.7% 대 20.5%, 윤리경영 및 경영투명성 향상은 28.1% 대 25.3%, 노사관계 안정은 36.4% 대 25.3%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를 앞섰다.

이처럼 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좋은 인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은 자녀의 일자리는 ‘공무원·교사 등 정부·공공분야’(41.2%)와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34.3%)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KT, 자회사 KTF 합병 추진**

KT가 자회사인 KTF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지주회사 전환 등 지배구조 개편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는 내년 IPTV, 인터넷전화, 와이브로 등 신 성장사업 역량을 집중해 처음으로 12조원 매출을 돌파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기로 했다.

남중수 KT 사장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년도 사업계획과 함께 SK텔레콤의 하나로 텔레콤 인수 등 통신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혔다. 남 사장은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뿐만아니라 머지않아 여러 가지 변수가 예상된다”며 “KT와 KTF의 합병도 고액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주회사 형태가 됐든 합병이 됐든 리스트러처(구조개편)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심도있게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KT는 내년 총 투자규모를 올해보다 2천억원 증가한 2조6천억원으로 정하고, 이 중 61%인 1조6천억원을 신 성장사업과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수입 원자재값 3개월 연속 최고치**

한국수입업협회(KOIMA)가 주요 수입원자재 가격을 종합해 산정하는 ‘코이마지수’가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11일 한국수입업협회에 따르면 11월 코이마지수는 308.5포인트로 1995년 지수 산출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던 10월의 286.52포인트보다 21.98포인트 올랐다. 코이마 지수는 1995년 12월 원자재 수입가격을 기준치인 100으로 놓고 매월 30개 주요 수입원자재 가격을 산출한 것으로 올해 들어 8월을 제외하고 상승세를 유지해왔다. 부문별 원자재 수입가격은 유화원료가 고가화의 여파로 12.1% 오히려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광산품(10.1%), 섬유원료(4.6%) 등 거의 전 부문에서 상승세를 나타냈다. /연합뉴스